

제목	중국공상은행과 디지털위안화(e-CNY) 관련 면담 실시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북경사무소는 디지털위안화 관련 최신 동향 파악과 현지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을 위해 2023.11.3일(금) 중국공상은행과 디지털위안화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, 디지털위안화의 전자지갑 개설 현황, 개인정보보호, 전산구축비용, 금융포용 등에 대해 논의

면담 결과

- **(업무수행목표)** 중국공상은행 디지털위안화 전략기획부서의 **업무수행 목표**는 다음과 같음
- 위챗, 알리페이는 기업 부도시 신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중국공상은행 고객들의 **지급수단**을 **안전자산인 디지털위안화(e-CNY)**로 **전환 유도**
 - 디지털위안화 사용에 필수적인 **전자지갑 개설업무** 등을 **안전하게 수행**
 - 소액결제분야에서 **디지털위안화 사용용도**(자금이체, 급여이체, 세금납부 등)를 중국 거점도시내 중국공상은행 지점을 통해 **지속적으로 확대**
 - 중국·홍콩·태국·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하고 있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(CBDC) 관련 「**M-Bridge 프로젝트***」에 **활발히 참여**

* 중앙은행디지털화폐(CBDC)를 이용한 역외결제프로젝트이며 2019년에 신설되었고 참여국간 실시간 외환동시결제가 가능해지도록 설계됨으로써 중간단계의 결제수수료가 절감

- **(전자지갑 개설 현황 등)** 2023.9월말 현재 중국공상은행 고객중 **개인 기준은 9천 4백 만개, 기업기준은 30만개**의 전자지갑이 각각 **개설**
- **(전자지갑내 디지털위안화 유용)**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의 경우 과거 전자지갑에 보관된 고객의 현금을 해당 기업이 **고리대출**하여 **부당이득**을 **편취**한 사례에 대해 정책당국이 제재한 것을 고려하여, 중국공상은행은 고객의 **전자지갑**에 보관되어 있는 **디지털위안화**를 **원칙적으로 활용하지 않음***
 - * 다만, 고객이 동의한 경우 활용 가능
- **(전자지갑 해킹 대응)** 전자지갑 해킹은 고객의 **재산 피해**로 직결되는 만큼 현재 디지털위안화 운용 관련 중국공상은행의 **가용역량**중 상당분을 **해킹방지업무**에 **투입**
 - ① 중국공상은행을 포함한 **9개 디지털위안화 유통기관**은 전자지갑 해킹에 대비하여 **수시로 협력**하고, ② **다양한 모의실험과 시나리오**를 통해 **해킹**을 **예방**하거나 **피해**를 **최소화**하며, ③ 새로운 해킹 시도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**비상업무체계도 마련**
- **(개인정보보호)**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 사용시 **개인정보 수집**에 대해 **자금세탁 등이 우려**되는 것에 국한하여 **거래내역**을 **수집**한다는 원칙이므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**개인간 소액거래정보**가 **수집**될 **가능성은 제한적**
 - 또한 결제한도가 소액(1회 2천위안 이내)으로 설정된 전자지갑의 경우 휴대폰번호 이외에 신분증번호, 고객 계좌번호 등이 전자지갑 개설시 불필요하므로 **소액의 디지털위안화 거래**에 대해 고객들의 개인정보(계좌정보 등)가 **노출**되거나 **수집**될 **가능성은 적음**
- **(전산시스템 구축 비용)** 디지털위안화 관련 중국공상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비용은 **인민은행**으로부터 **별도로 보전받지 않음**
- **(고객의 만족도)** 중국공상은행이 디지털위안화 사용 관련 고객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인민은행이 중국공상은행 고객들을 추천하여 소정의 **홍바오(복돈)**를 명절에 **디지털위안화**로 **배분**한 **전략**은 **디지털 위안화 홍보**에 **주효**했다고 판단

- 한편, 중국공상은행은 디지털위안화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NFC (근거리 무선통신) 결제방식도 병행하여 운영중
- (지급수단의 QR코드 표준화) 최근 인민은행이 소액결제분야에서 지급수단의 QR코드를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(2023.9월)하였는데, 금융시장 일각에서 인민은행이 향후 위챗페이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디지털위안화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견해에 대해 중국공상은행은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
- 인터넷플랫폼 등에서 물품대금 결제시 위챗페이, 알리페이, e-CNY 등의 지급수단 QR코드가 상이하여 결제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므로
향후 다양한 지급수단이 장착된 표준화된 QR코드를 만들어 소비자의 결제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급수단을 디지털위안화로 통일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평가
- (금융포용)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년층의 경우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국공상은행은 노년층의 현금 사용에 대비하여 은행 현금거래창구도 계속 유지할 방침
- 아울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위안화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행중